

주보

2024. 10. 6.

위임목사 **이영훈**
(Senior Pastor Rev. Younghoon Lee)
부 목 사 **윤광현**(교무) **김호성**(목회) **고영웅**(개척)

◆ 2024 표어 ◆

오직 은혜로

◆ 2024 교회목표 ◆

1.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교회
2. 말씀과 감사로 열매 맺는 교회
3.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



새로운 도약 
희망의 70년을 향하여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의도순복음교회
YOIDO FULL GOSPEL CHURCH

0723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6길 15
15, Gukhoe-daero 76-gil, Yeongdeungpo-gu, Seoul

성찬예배순

2024. 10. 6.

Communion Sunday Worship Service

예배로 부르심 Invocation	요(John) 4:24	사회자 Presider
찬송 Hymn	8장(통9장) 4절 Hymn No. 8 v. 4	다같이(일어서서) All Together(Please Stand)
신앙고백 Confession	사도신경 The Apostles' Creed	다같이(일어서서) All Together(Please Stand)
찬송 Hymn	1부: 310장 (통410장) 2·3·4부: 149장 (통147장)	주일저녁: 302장 (통408장) All Together
기도 Prayer		기도자 Prayer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사회자 Presider

1부 엡(Eph.) 1:7~10

2:3-4부 갈(Gal.) 6:17~18

5부 대학청년 계(Rev.) 3:14~22

주일저녁 마(Matt.) 17:24~27

찬양 Anthem		찬양대 Choir
설교 Sermon		설교자 Preacher

1부 예수님 보혈의 능력 윤광현 목사
The Power of the Blood of Jesus Rev. Kwanghyun Yoon

2·3·4부 예수님의 흔적 이영훈 목사
The Marks of Jesus Rev. Younghoon Lee

5부 대학청년 그 사랑에 뜨겁게 반응하라 김남준 목사
Respond to That Love with Passion Rev. Namjun Kim

주일저녁 실수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황혁 목사
God Who Turns Mistakes into Blessings Rev. Hyeok Hwang

기도와 결신 Prayer & Altar-Call		설교자 Preacher
-------------------------------	--	-----------------

성찬 229장 (통281장) 다같이
Communion (통281장) All Together

헌금기도 기도자
Offering Prayer

찬송 주기도문(635장) 다같이(일어서서)
Hymn The Lord's Prayer All Together(Please Stand)

축도 설교자
Benediction Preacher

수요일예배순

Wednesday Worship Service

사 회 / 1부 10시 10분 이상영 목사 2부 13시 40분 최재열 목사 3부 19시 25분
 예배로 부르심.....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1:2부: 384장(통434장)..... 다같이 기도..... 1부: 김광부 장로 2부: 이명찬 장로
 성경봉독..... 1:2부: 갈(Gal.) 3:13~14, 3부: 막(Mark) 12:41~44..... 사회자 찬양..... 1부: 베테스다 찬양대 2부: 시온 찬양대 3부: 호산나 찬양대
 설교..... 범사가 잘되는 축복..... 1부: 이영훈 목사 2부: (스크린)..... 3부: 김민철B 목사
 헌금기도..... 1부: 배석규 안수집사 2부: 이희진 안수집사

오늘의 말씀

“이 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갈 6:17~18)

사 회

1부 06:40 신동석 목사
 2부 08:40 김형건 목사
 3부 10:40 김성호B 목사
 4부 12:35 김민철B 목사
 5부 대학청년 14:35 홍성복 목사
 주일저녁 16:40 이원재 목사

금요성령대망회순

Friday Night Holy Spirit Prayer Meeting

사 회 / 박현주 목사 20시
 기도..... 조왕근 장로
 성경봉독..... 막(Mark) 11:1~6..... 사회자 찬양..... 갯세마네 찬양대
 설교.....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영찬 선교사

대표기도

1부 염 경 호 장로
 2부 이 주 역 장로
 3부 류 득 춘 장로
 4부 이 태 언 장로
 5부 이근영B 장로
 대학청년 김 형 진 장로
 주일저녁

토요일예배순

Saturday Worship Service

사 회 / 김민구 목사 10시 10분
 예배로 부르심..... 요(John) 4:24..... 사회자 찬송..... 382장(432장)..... 다같이 기도..... 김종록 장로
 성경봉독..... 히(Heb.) 11:20..... 사회자 찬양..... 가브리엘 찬양대
 설교..... 히브리서(64): 믿음으로 이삭은..... 김호성 목사
 헌금기도..... 송영순 안수집사

헌금기도

1부 김 경 호 안수집사
 2부 변 성 호 안수집사
 3부 이 진 봉 안수집사
 4부 한 재 호 안수집사
 5부 신은경 성 도
 대학청년 오 세 형 안수집사
 주일저녁

금주의 찬양

Choir Anthem

구분	찬양대명	지휘자	찬 양	구분	찬양대명	지휘자	찬 양
주일1부	베 다 니	강 내 우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수요1부	베테스다	김 호 식	나의 찬미
주일2부	베들레헴	윤 의 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수요2부	시 온	조 현 호	내 영혼이 은총입어
주일3부	예루살렘	김 호 식 (객원지휘)	야 하나님의 은혜로	수요3부	호 산 나	윤 규 섭	생명의 강가로
주일4부	나 사 렷	이 종 진	주님의 크신 은혜	5부 대학청년	갯세마네	송 성 철	은혜 아니면
주일저녁	에벤에셀	김 영 준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드니	주일저녁	가브리엘	이 용 중	여호와의 위대하다

생명의 말씀

The Word of Life

예수님의 흔적

(The Marks of Jesus)

갈(Gal.) 6:17~18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떠났을 때 자기 이름이 복된 모습으로 회자 되고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자신의 이름과 흔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아름다운 흔적만을 남기도록 힘써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평생에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흔적을 남긴 뒤 천국으로 향했던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 사도 바울의 유일한 자랑 (The only boast of the Apostle Paul)

사도 바울은 한때 교회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던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던 스테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는 그 곁에 서서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고, 성도들이 핍박을 받아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을 때는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 그들을 잡으러 떠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교회를 박해하려 다메섹으로 향하던 중 빛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행 9:3). 그리고 이 경험은 그의 일생을 바꾸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 그는 한평생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했고 그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단언했습니다(갈 6:14). 이처럼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자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의 자랑이며, 그가 닮아갈 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2. 사도 바울이 지닌 예수님의 흔적 (The marks of Jesus that the Apostle Paul bore)

1세기 로마 제국에는 노예제가 성행했는데 주인들은 노예의 몸에 낙인을 새겨 누구의 소유인지를 표시하곤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종을 자처했던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갈 6:17). 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각종 위협에 처하며, 돌에 맞아 죽기 직전까지 갔던 바울의 온몸에는 고난의 상처가 가득했습니다(고후 11:23~27). 이것이 바로 그가 말한 ‘예수의 흔적’이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으로 인해 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받는 길, 복음을 위해 사는 길입니다.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우리 몸과 마음에 남는 그 흔적이 바로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3.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하나님께서서는 예수님의 흔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갈 6:18). 우리는 주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때 예수님을 위한 고난을 감당할 수 있고 아픔과 손해와 고통조차 마다하지 않는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고전 15:10)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한평생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 예수님의 흔적만을 남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소식

News Board

- ◆ 10월 특별새벽기도회-일시: 10월 19일(토) 새벽 5시 45분 / 장소: 대성전 / 설교: 이영훈 목사
- ◆ 제30차 CGI 세계교회성장대회-일자: 10월 23일(수)~25일(금) / 장소: 본 교회 및 오산리기도원
- ◆ 세계 평화와 영적 대부흥을 위한 기도대성회-일시: 10월 26일(토) 오후 1시 / 장소: 연세대학교 노천극장

예 배

1. 10월 첫째주 새벽예배-일시: 10월 7일(월)~12일(토) 새벽 4시 45분(토요일은 새벽 5시 45분) / 장소: 대성전(토요일은 예루살렘성전)
설교: 김성호B 목사(7일~9일), 신동석 목사(10일~12일)
2. 원로장로회 2024년 정기총회-일시: 10월 13일(주일) 오전 11시 / 장소: 원로장로회 예배실(세계선교센터 7층) / 설교: 고영용 목사
3. 남산교회 10월 헌신예배-일시: 10월 16일(수) 오후 7시 30분 / 장소: 뽕엘성전(세계선교센터 7층) / 설교: 고명진 목사
4. 장로회 10월 장로기도회-일시: 10월 18일(금) 오후 7시 / 장소: 뽕엘성전(세계선교센터 7층) / 설교: 임병선 목사

모 집

1. 교무국교육영성훈련원 제3회 성령페스티벌 참가자 모집-문의 ☎ 02-6181-7469, 7433
일시: 10월 14일(월)~17일(목) 오후 6시 30분 / 장소: 세미나실(제1교육관 10층)

안 내

1. 오늘 결신한 분들을 위한 새가족 환영회가 베들레헬성전에서 있습니다.
온라인 새가족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으로 등록 및 교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주일 대성전 지하3층은 새가족 전용 주차장이므로 많은 활용 바랍니다.)
2. 교회학교 2024년 성극동아리 '꿈꾸는 사람' 정기공연
일시: 10월 13일(주일) 오전 10시 10분(1회차), 오후 12시(2회차) / 장소: 바울성전
3. 교회학교 사춘기멘토링 아카데미 1기
일시: 10월 20일(주일), 10월 27일(주일), 11월 17일(주일) 오후 2시 / 장소: 뽕엘성전(세계선교센터 7층)
4. 교회학교 유아부 가을운동회 & 전도축제-일자: 10월 20일(주일) / 장소: 농구장(비전센터 7층)
5. 수요 찬양예배(수요 3부 예배)가 오후 7시 25분부터 대성전에서 드리됩니다.
6. 이영훈 목사의 신간 「신앙으로 살아가다」가 출간되었습니다.

◆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는 교회 내 각종 판매행위(다단계 등) 또는 성도 간 투자권유 및 금전거래를 금지합니다.

▣ 다음 주간(10/13, 10/16, 10/18, 10/19) 대표기도(장로)

주일예배(10/13)						수요일예배(10/16)	1부:조영남 2부:장영채
1부	2부	3부	4부	5부 대학청년	주일저녁	금요성령대망회(10/18)	최종진
이경우	조숙현	문두석	변승현	정선석	이육현	토요일예배(10/19)	장태영

- ▣ 교회 대표전화(주간) ☎ 02-6181-9191, (야간) ☎ 02-6181-9000~3
- ▣ 의례팀(장례 상담 및 조화 신청 시간 07:00~20:00) ☎ 02-6181-6533

온유한 사람의 향기

미국은 1783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후, 13개 주를 하나로 통합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1787년 필라델피아에서 제헌 회의가 열렸지만, 각 주의 이익이 충돌하면서 회의장은 팽팽한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이때, 회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이끈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인 벤저민 프랭클린이었습니다. 그는 논쟁이 과열될 때마다 적절한 농담과 유머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흥분한 참석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조용히 설득하고 중재했습니다. 프랭클린의 온화한 성품은 미국이 연방 헌법을 제정하고 하나의 국가로 탄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꽃향기는 백 리를 가고 술향기는 천 리를 가지만, 사람의 향기는 만 리를 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처럼 온유한 사람의 영향력은 주변에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프랭클린의 이야기는 온유함이 단순한 미덕을 넘어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주변에도 크고 작은 갈등이 끊임없이 생깁니다. 이럴 때 프랭클린 처럼 온유한 태도로 상황에 대처해 보는 건 어떨까요? 감정적인 반응 대신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고 존중하며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우리 모두 온유함의 향기를 널리 퍼뜨리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